국별리포트

그루지야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7. 3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6

Ⅳ. 국제신인도 8

Ⅴ. 종합의견 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그루지야

Ⅰ. 일반개황

면 적	70천 Km2	G D P	74억 달러(2006년)
인 구	4.5백만 명 (2006년)	1 인 당 GDP	1,635달러(2006년)
정 치 체 제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Lari
대 외 정 책	친서방	환 율(달러당)	1.71(2006년 말)

- 그루지야는 흑해 동남쪽 코카서스산맥 기슭에 위치하며, 러시아, 터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 4국에 둘러싸여 있는 인구 4.5백만 명의 소국으로 포도주, 광물 및 수자원 등 1차산품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

- 1991년 4월 소련연방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유지된 세바르드나제 대통령의 독재체제는 선거결과 조작 및 부정 의혹으로 인해 '장미혁명'이라고 명명된 비폭력 시민혁명으로 2003년 말 붕괴되었음.

- 2004년 대선에서 미하일 사키쉬빌리가 96%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루지야 대외정책은 급격히 친 서방으로 기울었으며, 사카쉬빌리 정부가 과감히 추진해온 민영화 및 세제개혁 등의 개혁정책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점차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음.

- 러시아가 아브하지야 지역과 남오세티야 공화국의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한편, 큰 폭으로 가스가격 인상과 금수조치 등의 경제제재를 취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이는 동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f
경 제 성 장 률	5.5	11.1	6.3	9.3	8.5
재 정 수 지 / G D P	-2.5	-1.8	-1.5	-0.1	-0.4
소비자물가상승률	5.6	4.8	5.7	8.2	9.2

자료 : IFS 및 EIU, *Country Report* 등.

□ 실질 GDP 성장률

- 그루지야는 2003년 이후 대형 파이프라인 공사, 주요기업의 민영화 추진 등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했음. 2005년 9.3%의 고속성장에 이어 2006년에도 8.5%대의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러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인상 및 일부 품목의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2007년의 경제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 유가상승, 국외노동자의 송금유입 증가, 일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 압박이 심화되었으나, 중앙은행의 긴축정책 및 Lari화의 강세로 연말에는 다소 진정 기미를 보여 2006년 물가상승률은 연초 예상치에 근접하는 9.2%를 기록하였음.

□ 재정적자 개선

-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기조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세제개혁 및 민영화가 실효를 거두며 GDP 대비 재정적자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 GDP 대비 농업 비중 여전히 높아

- 2000년 이후 공업·건설업을 중심으로 여타 업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1996년 당시 50%에 달했던 농업부문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GDP의 18%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풍부한 망간, 수자원, 관광자원

- 그루지야는 망간(2.2억 톤), 구리(34만 톤), 금(3.7만 톤) 등 상당한 천연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자원 또한 풍부한 것으로 알려짐. 국토 전역에 2,300여개의 생수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구소련 시절부터 유명했던 그루지야산 포도주에 대한 인근 국가의 수요 또한 꾸준하여 수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음.

- 정부는 ERBD, 쿠웨이트 정부 등으로부터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동국의 대외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에너지 기반을 구상하고 있음.

□ 대규모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건설업 활황세

-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그루지야의 트빌리시, 터키의 세이한을 잇는 전장 1,749km의 BTC(Baku-Tbilisi-Ceyhan) 원유 파이프라인이 2006년 5월 공식 개통되었고, 비슷한 경로의 SCP(South Caucasus Pipeline) 천연가스관 또한 성공리에 준공되어 지난 1월부터 가스 운송이 시작되었음. 그루지야는 동국을 경유하는 BTC관 원유에 대해 통과세(Transit fee)를 부과함으로써 연간 6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 유치 및 기업 민영화를 통한 대규모 FDI 유입으로 건설업의 활황세는 2006년에도 지속되었으며, 그에 대한 파급효과로 개인주택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무선통신 및 요식업 또한 활기를 띠었음.

□ 에너지자원 공급통로로서의 중요성 부각

- 동국은 카스피 해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유럽시장으로 공급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그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BTC 송유관: 2006년 원유공급이 시작된 세계 최장 송유관으로 최대 100만 b/d의 공급 능력 보유
・SPC 가스관: 아제르바이잔-그루지야-터키로 연결되는 가스관으로 2007년 초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
・아제르바이잔-그루지야-우크라이나-EU 라인 건설 구상 등.

- 여러 수송 루트 개발을 통해 카스피 해 지역은 유럽시장을 두고 러시아의 강력한 경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유럽의 에너지 공급전략에서 그루지야의 중요도는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

□ 대기업 민영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 1995년 정부가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시작한 이래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은 민영화된 반면, 200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온 주요 대기업 매각은 다소 난항을 겪고 있음.

- 초기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야 하는 부담을 비롯해 동국 정부의 안이한 사후관리 태도 및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의식 등이 장애요인인 것으로 추정됨. 앞으로 공기업 매각에 의한 세입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 및 세수 확대 등을 통한 대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함.

□ 시장지향적 경제개혁 지속

-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는 매년 175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경영환경(Doing Business)조사에서 2005~06년 중 그루지야를 가장 높은 경제개혁 성과를 거둔 국가로 지목하였음.

- 현 정부는 2005년 1월자로 조세항목을 기존의 21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소득세를 12% 단일비례세로 변경함으로써 획기적인 세수 증대효과를 거두었으며,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부패 축소에도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안정적인 통화정책 구축해야

- 그루지야 중앙은행(NBG)은 그동안 리파이낸싱 금리 조정을 통해 환율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해왔으나, 유동성이 현저히 부족한 그루지야 자본시장에서는 그 효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은행은 그동안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이기 위한 긴축통화정책을 유지해왔으며, 2006~09년도 그루지야 금융시스템 개발계획 발표에서 국채 경매에 국한되어 있는 현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가증권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 개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e
경상수지	-234	-383	-423	-752	-953
경상수지/GDP	-6.9	-9.6	-8.1	-11.7	-13.0
상품수지	-489	-638	-916	-1,214	-1,636
수출	603	831	1,092	1,472	1,731
수입	1,092	1,469	2,008	2,686	3,367
외환보유액	199	191	375	478	931
총외채잔액	1,839	1,935	2,082	..	..
총외채잔액/GDP	54.2	48.5	40.0	..	..
D.S.R.	11.2	12.5	11.6	..	..

자료 : IFS 및 EIU.

□ 교역구조 (2006년 기준)

- 2005년 기준 그루지야의 최대수출국은 러시아였으나, 2006년 10월 취해진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의 여파로 2006년에는 수출국 3위(7.6%)에 머물렀음.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터키, 아제르바이잔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양국으로의 수출이 총수출의 각각 12.6%, 9.3%를 차지함.

- 품목별로는 합금철, 금, 철강, 와인 등 1차 산품 수출비중이 높아 이들의 국제시세 변동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2006년 기준 총수입 중 석유·가스가 17.8%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규모 또한 전년 동기대비 54%가 증가하여, 에너지자원이 현저히 부족한 그루지야의 상품수지를 악화시키고 있음.

□ 경상수지 적자 여전히 심각

-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고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동국은 고질적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2006년 10월에 내려진 포도주, 생수 등 동국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러시아의 금수 조치로 인해 동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무려 34.5%나 증가하였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또한 13%에 육박하였음.

□ 외환보유액 증가세

- 파이프라인 건설을 중심으로 한 FDI 유입으로 인해 2006년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년보다 94.7% 늘어난 9억 3,038만 달러를 기록하여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음.

□ 외채부담 점차 감소

- 2004년 기준 외채잔액은 2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나, GDP 대비 외채잔액은 20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FDI 유치 상황

- 2006년 2/4분기 FDI는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투자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177.4% 늘어난 2억 9,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큰 폭으로 확대된 2006년 경상수지 적자의 상당부분을 보전하였음. 또한, 주요 무선통신 기업인 United Telecommunication Company의 매각과 더불어 기타 국영기업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FDI 유입이 급속히 확대되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사카쉬빌리 대통령, 내각 개편 단행

-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2006년 11월 지역분리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온 이라클리 오크루아쉬빌리 국방부 장관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내각 개편을 단행하여, 아브하지야 및 남오세티야 지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였음.

□ 현 정권에 대한 국민지지 굳건

- 러시아와의 관계가 심화된 가운데 2006년 10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국민운동당(National Movement)이 75%의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여당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음.

□ 주변국 및 서방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 2006년 11월 주라브 노가이델리 그루지야 총리는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곧 마무리 지을 것임을 시사하며, 양국간의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또한, 그루지야 정부는 EU와의 근린정책(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ENP) 체결에 이어 Action plan을 수립함으로써, 비자 간소화 및 자유무역 체결 추진을 통해 EU와 보다 결속력 있는 관계를 형성할 것을 약속함.

□ 악화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기대

- 2006년 9월 중 그루지야 정부는 첩보활동 혐의로 러시아군 장교 4명을 체포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였음. 그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그루지야산 와인과 생수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하였으며, 러시아에 거주하는 그루지야 이민자를 불법 거주, 밀매 등을 이유로 대거 추방하였음.

- 양국간 긴장이 고조됨과 함께 2006년 10월 본국으로 귀환하였던 그루지

야 주재 러시아 대사가 3개월 만에 트빌리시로 돌아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차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2007년 2월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바란다는 뜻을 강조하며, 양국간 이익 도모를 위한 협력관계 개선을 제안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인구감소

- 200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내전 등 정치불안으로 인한 이주, 출산률 감소 등으로 인해 1989년 5.5백만 명에 달했던 그루지야 인구는 2006년 4.5백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2015년까지의 인구증가율 추정치가 -6.5%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부패 청산에 큰 진전, 실업률 여전히 높아

- 조사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세금 횡령, 밀수 등의 부정부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강력한 부패 청산 및 기업환경 개선정책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음.

- 2006년의 경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전년 동기 13.3%에서 13.7%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노동참가율 또한 감소해 자영업이 취업인구의 66%를 차지하는 동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음. 2007년에 실업문제 해소 및 복지제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구조적인 실업문제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전반적인 사회안정이 유지되고 있는 동국에서 인권유린 행위, 언론 탄압 등의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만한 시민혁명이나 내부적인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분리독립 문제 여전히 불안요소

- 사카쉬빌리 정권 출범 이후 영토통합을 위해 자치국에 대한 강경책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오세티야 공화국은 2006년 11월 자체적인 독립 찬반투표 및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독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남오세티야 공화국은 사실상 독립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루지야 내 친러 성향의 자치국으로 1990년부터 러시아로의 편입을 추진해왔음.

- 또 다른 분쟁 지역인 아브하지야는 1930년까지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스탈린의 강권으로 그루지야에 합병됨. 이후 아브하지야 자치국이 독립을 선언하자 그루지야 정부가 군사적 대응에 나서면서 1992년 내전이 발발하였으며, 그로 인해 최소 2만 명의 사망자와 25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음. 1994년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독립운동이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 내의 지역분쟁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EU, NATO 등의 국제단체는 그동안 그루지야의 지역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해왔으나, 남오세티야, 아브하지야 두 자치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음. 반면, 러시아는 영향력 행사를 위해 남오세티야에 교육, 의료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독립을 지지하는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그루지야-러시아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왔음.

Ⅳ. 국제신인도

1. 2007년 1월 OECD 그루지야 국가등급 한단계 상향 조정

- Euromoney : 129/185 ('06. 3) → 138/185 ('06 .9)
- I.I : 119/173 ('06. 3) → 113/173 ('06. 9)
- OECD : 7등급 ('06. 1) → 6등급 ('07. 1)
- S&P : B+ ('05. 12, 최초 평가)

2. 주요 ECA 인수태도

- 미 수은 : 전액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독일 Hermes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영국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인수 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미 수은은 그루지야에 대한 인수태도를 "인수불가"에서 "전액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으로 변경하였음.

3. 파리클럽 리스케줄링 타결 이후 외채부담 다소 감소

- 독립 이후 곡류 및 에너지 자원 수입으로 발생하는 외채가 늘어나면서 1994년 동국의 외채잔액은 GDP의 56%에 육박하였음. 이후 IMF의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를 통한 지원에 힘입어 2004년에 러시아, 미국, 독일 등 7개 채권국과의 파리클럽 리스케줄링 타결에 성공하였으며, IMF 지도 하에 빈곤감축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을 시행해오고 있음.

Ⅴ. 종합 의견

- 동국은 대형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한 FDI 유치에 힘쓰는 한편 경제개혁 및 산업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수년간 높은 경제성장세를 지속해왔음. 또한,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보, 국영기업 민영화의 가속화를 통해 재정수지 적자폭을 상당히 축소하였음.

-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를 면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적자의 상당부분이 FDI를 통해 보전 가능하고 향후에는 파이프라인 통과수입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 축소가 기대됨.

- 독립움직임을 보이는 아브하지야 및 남오세티야 공화국과의 분쟁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독립운동을 저지하고자 하는 동국과의 국지적 충돌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NATO 가입 추진, EU와의 관계 강화 등 서구진영 편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06년 급격히 악화되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도 더 악화되기보다는 다소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1월 OECD는 러시아 경제제재 등의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호전된 동국의 경제상황 및 안정적인 국내정치 환경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종전의 7등급에서 6등급으로 1단계 상향 조정하였으며, 미 수은 또한 긍정적인 인수태도를 보이고 있음.

- 동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 개선, 국제 신인도 상승,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입지 확보 등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

전문연구원 심현정(☎02-3779-6655)
E-mail : hjshim@koreaexim.go.kr